

광주·전남 선수단 다관왕·신기록 양산 등 풍성한 수확



전국체전 폐막...광주 금 26개 등 메달 74개 역대 최다 전남 지난 대회 성적 뛰어넘어...차세대 스타들 배출도

광주·전남선수단이 14일 폐막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관왕과 신기록을 쏟아내는 등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광주는 고등부 역대 최고 메달, 최다 금메달과 함께 광주·전남 분리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광주가 수확한 메달은 금메달 26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23개 등 총 74개다. 전남은 제100회 체전(금메달 15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18개) 성적을 훌쩍 뛰어 넘는 성과를 거

뒀다. 전남은 금메달 21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3개 등 총 59개의 메달을 수확했으며, 전남체육인재 발굴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광주선수단은 이번 체전에서 신기록 5개와 다관왕 선수 6명을 배출했다. 남고부 공기소총 단체전에 출전한 최대한, 황의혁 김정현, 오준서(광주체고) 조가 1876.4점으로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또 최대한은 개인전에서 249.3점으로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따내 대회 2관왕에 올랐

다. 역도의 나민주(정광고 3), 체조 서정원(광주체고 3)은 3관왕을 차지했고, 수영 김지형(광주체고 1), 역도 황수민(정광고 3), 사격 최대한(광주체고 2), 핀수영 양현지(광주체고 1)는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한몫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 양궁에서도 남고부 90m 경기에서 강민재(광주체고 3)가 '도쿄올림픽 스타' 김태혁을 꺾고 금메달을, 여고부 70m에 출전한 조수혜(광주체고 1)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검도에서는 서석고가 단체전 결승에서 개최지 경북을 꺾고 정상에 올라 제88회 광주 체전 우승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합작했다. 소프트볼 여고부 강호 명진고도 경남(진주외고)

과의 결승에서 우천으로 공동 우승을 차지하며 '명가 부활'을 알렸다. 전남선수단은 전국체전에 첫 출전, 3관왕에 등극한 두 명의 차세대 스타를 배출했다. 3관왕 달성과 함께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며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한 자전거 김채연(전남체고 2)과 소년체전 3년 연속 3관왕을 달성했던 조민재(전남체고 2)가 첫 출전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3관왕을 차지하며 기업을 토했다. 육상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가 쏟아졌다. 이경민(전남체고 3)이 세단뛰기 금메달과, 멀리뛰기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경희(전남체고 3)와 채지훈(전남체고 3)도 각각 세단뛰기와 해머던지

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의 주력 종목인 물리에서는 이유진(여수충무고 2)이 스피드1000m O.R에서 금메달, 스프린트500m+D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레슬링에서는 그레코로만형 63kg급 윤지원(전남체고 3), 자유형 57kg 유승현(전남체고 2), 92kg 정우성(전남체고 3)이 금메달을 땀다. 유수의 윤여중(순천복성고 3)은 산타 56kg급에서, 바둑의 배찬진(한국바둑고 1년)은 혼성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소프트테니스 전국 최강 순천여고는 지난 100회 체전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선우(18·서울체고)가 14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경기 남자 고등부 혼계영 400m 결승에서 우승 후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선우 5관왕 ...혼계영 400m도 우승

황선우(18·서울체고)가 화창 시절 마지막 전국체전을 생애 첫 5관왕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황선우는 14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날 수영 경기 남자 고등부 혼계영 400m 결승 2조 경기에 서울 선발전팀의 일원으로 나서서 3분43초07의 기록으로 우승을 일궜다. 혼계영 400m는 한 팀 네 명의 선수가 배영·평영·접영·자유형 순서로 차례로 100m씩 헤엄쳐 시간을 다투는 단체전 종목이다. 황선우는 이날 이수민, 최명재, 황보준현에 이어 서울의 마지막 자유형 100m 구간을 맡았다. 첫 배영 구간을 1위로 돈 서울은 평영 구간에서 2위로 밀렸다가 접영 구간에서 1위를 되찾았고, 황선우가 여유 있게 레이스를 마무리했다. 2위 경기(3분46초42)와는 3초 넘게 차이가 났다. 3위는 강원(3분47초04)에 돌아갔다. 남자 혼계영 400m 한국 기록은 올해 5월 국가

대표 선발전대회에서 각 종목 국내 최강자인 이주호, 조성재, 문승우에 이어 황선우가 역시 마지막 영자로 나서서 합작한 3분35초26이다. 이날 우승으로 황선우는 이번 대회에서 출전한 다섯 종목 모두 금메달을 수확하고 5관왕에 올랐다. 자유형 100m와 200m가 주 종목인 황선우는 앞서 10일 자유형 50m와 계영 800m, 12일 개인혼영 200m와 계영 400m에서 차례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 종목도 아닌 개인혼영 200m에서는 1분 58초04의 한국 신기록까지 세웠다. 박태환(32)이 2014년 7월 MBC배 전국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2분00초31)을 무려 7년 3개월 만에 2초27이나 단축하고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분대 벽을 무너뜨린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황선우가 대회 5관왕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광주 '비장한 원정길' ...전남 '준PO 확정길'

4연패 몰린 광주 17일 강원전 잔류 목표 위해 승리 절실 전남, 부산 상대 '4강 썰기' 노력

광주FC가 비장한 각오로 강원 원정길에 오른다. 광주는 17일 오후 2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를 상대로 K리그1 2021 28라운드 원정 순연 경기를 치른다. 4연패에 빠진 광주는 최하위인 12위에 머물고 있다. 11위 성남FC와 승점 5점 차, 10위 강원과도 5점 차이지만 강원외 1경기를 탈 치렀다. 광주는 앞선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김종우의 페널티킥과 두현석의 시즌 마수결이 골로 역전극을 연출했지만, 후반 막판 이호재에게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이번에도 포항 벽을 넘지 못하고 2-3으로 졌다. 이미 광주는 파이널B가 확정됐다. 파이널 라운드 전장에 앞서 광주는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잔류' 목표를 위해 달려야 한다. 강등 후보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단독 경기로 진행되면서 K리그 팬들의 시선이 강릉종합운동장에 쏠릴 전망이다. 현재 9위 FC서울부터 11위 성남까지 승점 34점으로 동률이다. 서울과 성남 입장에서 관심은 쏟아지는 경기다. 비장한 각오로 원정길에 오르는 광주에 희망은 있다. A매치 휴식기를 맞아 연패의 충격을 털어낼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엄원상, 김주공, 허을 등 공격진들의 발끝은 여전히 매섭다. 두현석과 김종우가 부상에서 복귀해 앞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 옵션도 늘었다. 포항전에서 결장했던 엄지성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임제민, 김대원, 신세계, 김영민, 한국영 등이 버티는 강원은 '병수불'로 불리는 특유의 조직력



광주FC가 17일 강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4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엄지성이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축구를 구사한다. 후반기 코로나19 확진과 부상 선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1승 1무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최근 분위기는 강원외 앞서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광주가 7승 8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1-0, 3-1로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강원은 핵심 공격수 고우열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다. 광주가 탄탄한 중원과 수비진으로 강원 공격을 차단하고 엄원상-엄지성을 통한 역습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안방에서 '4강 확정'에 나선다. 전남은 17일 오후 4시 광양전용구장에서 부산아이파크와 K리그2 2021 3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3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4위 전남은 5위 부산에 승점 8점 차로 앞서있다. 6위 경남과는 9점 차. 이번 경기에서 전남이 비기만 해도 부산과 경남의 4위 경주의 수는 사라진다. 하지만 전남의 목표는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다. 3-4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에서 3위 팀은 비기만 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갖는다. 4강 확정을 눈앞에 둔 전남은 3위를 목표로 부산전에 임한다. 3위 대전하나시티즌과는 승점 3점 차. 물리칠 수 없는 두 팀의 대결, 상대전적에서는 전남은 4승 4무 2패로 앞선다. 올 시즌에도 전남이 2승 1패를 기록했다. 전남이 우위를 이어 승리로 4강을 확정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부산 개막 LPGA 고진영·장하나 등 출전

21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 고진영(26), 장하나(29) 등 국내의 투어에서 활약하는 톱 랭커들이 출전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올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선수 84명이 정해졌다"고 발표했다. 국내 유일의 LPGA 정규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올해 대회에는 세계 랭킹 2위 고진영과 박인비(33), 김효주(26), 김세연(28) 등 올해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총출동하고 이정은(25), 전인지(27), 양희영(32) 등도 우승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쌓은 승수가 199승이라 이번 한국 대회에

서 200승 주인공이 탄생할 수도 있다. 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강자인 박민지(23)와 장하나, 박현경(21), 최혜진(22) 등도 출전해 '해피파' 선수들과 샷 대결을 벌인다. 장하나는 2019년 이 대회 우승자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전 세계 랭킹 1위 박성현(28)은 손예빈, 이지현, 강예린 등과 함께 초청 선수로 나온다. 이민지(호주), 리디아 고(뉴질랜드), 대니얼강(미국) 등 교포 선수들과 에리아 쥘리안(태국), 해나 그린(호주), 셸린 부티에(프랑스),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등 외국 정상급 선수들도 부산을 찾는다. /연합뉴스

자베르, 아랍 선수 첫 테니스 세계랭킹 '톱 10'

온스 자베르(27·튀니지)가 아랍 선수로는 남자를 통틀어 최초로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하게 됐다. 현재 세계 랭킹 14위인 자베르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835만9455 달러) 대회 7일째 단식 16강전에서

안나 칼리니키야(93위·러시아)를 2-0(6-2 6-2)으로 제압했다. 이 대회 8강에 오른 자베르는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9위 자리를 확보했다. 지금까지 아랍 국가 선수가 남녀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오른 사례는 현재 자베르의 14위와 남자프로테니스(ATP)의 경우

2003년 유네스 엘 아이나위(모로코)의 역시 14위였다. 자베르는 올해 6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WTA 투어 바이링 클래식에서 우승, WTA 투어 단식에서 우승한 최초의 아랍 국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또 아랍 여자 선수 최초의 메이저 대회 주니어 단식 우승(2011년 프랑스오픈), 메이저 대회 3회전(2017년 프랑스오픈), 메이저 대회 8강(2020년 호주오픈) 등의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논 2:렛 데어 비 카니지
2관	베논 2:렛 데어 비 카니지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3관	보이스
4관	베논 2:렛 데어 비 카니지
5관	베논 2:렛 데어 비 카니지
6관	베논 2:렛 데어 비 카니지
9관	007 노 타임 투 다이 스페이스 독 3: 트로피컬 어드벤처
7관 씨네카를	007 노 타임 투 다이, 신개념의 미래 살: 인연의 시작, 푸른 호수 극장만 찜하는 문명라 격월! 부서진 결계와 얽혀 내영의 왕들
8관 씨네카를	용과 주근깨 공주, 기적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